

저장된 페이지 보기

### ‘못미더운’ 텔넷아이티

[파이낸셜뉴스] 2002-12-06 00면 705자

텔넷아이티가 대표이사 변경 및 감자를 확정짓고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었다. 그러나 주가는 매매거래 재개이후 곧바로 하한가로 폭락했다.

6일 텔넷아이티는 개장과 함께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990원으로 시작한 후 그대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2만2000여주에 불과했고 하한가 매도잔량만 100만주가 넘었다.

텔넷아이티는 지난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순복?^최가열 각자대표에서 리치씨티캐피탈 김태훈 대표와 이경춘 변호사로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또 90% 비율로 감자를 단행, 자본금을 36억6428만원에서 3억6642만원으로 줄이는 안건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텔넷아이티가 임시주총으로 회사관리조직이 정비됐다고 판단해 6일부터 매매정지를 해제했다.

시장에서는 텔넷아이티가 매매를 재개했지만 향후 진로가 여전히 불투명해 주가반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때 10명선까지 줄었던 직원이 20명 가까이 늘었고 유상증자를 위한 감자도 진행하는 등 회사정상화를 위한 윤곽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가열 전 대표와 최대주주인 GRN홀딩스의 회사자금 횡령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텔넷아이티 관계자는 “채권단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등 채권단과 회사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채권단과의 협상이 끝나면 회사정상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홍민기자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